



# 200여명 시민 참여 대형 거리극, '광주의 울림' 선사

●광주문화재단 프리지페스티벌 자체제작 '아스팔트 부르스'...21일 금남로 무대

2024 광주프리지페스티벌 자체 제작 초연 작품인 '아스팔트 부르스' 연출 장면

2024 광주프리지페스티벌의 서막을 알리는 자체 제작 초연작품 '아스팔트 부르스' 준비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1일 오후 5시 2024 광주프리지페스티벌 자체 제작공연 '아스팔트 부르스'를 금남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250m 이동하며 예술단체·관람객 함께 만드는 거리예술 초연 작품 신혜원 감독 총괄...스트릿댄스·공중극·퓨전국악 등 광장 의미 전달

올해 프리지페스티벌 주제공연이자 초연 작품인 '아스팔트 부르스'는 광주시민과 예술인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60분짜리 대규모 이동형 거리극이다. 지역 예술단체와 관람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광주만의 거리예술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이고자 기획됐다. 신혜원 예술감독이 총괄기획을 맡고 윤종연 연출, 신재욱 제작감독, 차진광 무대감독, 창작중심 단위의 여러 제작진이 함께 했다. 공연은 금남로 1가(전일빌딩 2층 앞)부터 금남로 4가(금남로공원)까지 약 250m 거리를 이동하며 펼쳐진다. 금남로는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 시민들에게 단순히 도로의 기능을 넘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광장의 의미를 담고 있다. 거리예술이 펼쳐지는 동안 일상을 벗어나 시민들에게 일시적 해방감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공연을 위해 지난 8월 광주 시민배우와 학생·시민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130여명의 시민이 함께 한다. 참여 시민은 주부, 문화예술기획자, 회사원 등이며 연령대는 20~70대로 다양하다. 공연을 위해 세 차례 빙고을시민문화관 대연습실에서 워크숍을 열고 안무가와 간단한 동작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공연 '아스팔트 부르스'의 주제는 '너를 만나고 싶어'다. 1부 '환대'와 2부 '아스팔트 부르스'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1부에서 비상무용단과 나발레라 예술단, 빙



고댄서스가 각각 현대무용, 한국무용, 스트릿댄스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모마드와 퍼커션팩토리 노가 현악(중주와 퓨전국악을 선보이고, 우물안 개구리와 줄리브라스밴드가 경쾌한 인디음악과 브라스 연주로 공연의 서막을 알린다.

2부 '아스팔트 부르스'는 ▲거리에 서다 ▲후퇴 ▲너를 만나고 싶어 I·II 등 5장으로 구성된다. 일상의 통제에 맞선 시민들이 저항하고 연대하면서 해방을 맞이한다는 내용을 공중극과 무용, 집체극으로 표현한 거리극이다. 물과 꽃가루, 크레인을 사용한 공중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전통타악그룹 얼썬은 30여명의 전문 징수와 함께 130여 개의 징의 가락만으로 만든 창작곡을 연주하며 커다란 울림을 만드는 명장면을 연출한다. 징이 등장한 커다란 울림 연출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주제인 '판소리-모두의 울림'을 연계해 이를 거리공연으로 풀어내는 의도가 담겨 있다. 2부 공연 역시 금남로 1가에서 4가까지 도로를 이동하면서 약 40분간 펼쳐진다.

'아스팔트 부르스'는 21일 낮 12시 도로 위(금남로 1-4가)에서 공개 리허설을 진행하고, 오후 5시에 본 공연이 개최된다.

한편 2024 광주프리지페스티벌 주제는 '어쩌다 마주친...'이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쩌다, 우연히 마주치는 거리공연을 함께 즐기는 의미를 담았다. 올해 프리지는 오는 21~22일 '거리예술축제(광주비엔날레 일대, 금남로)'와 28~29일 '스트릿댄스 축제(광주 시청 야외음악당)'로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 피아니스트 김주상 리사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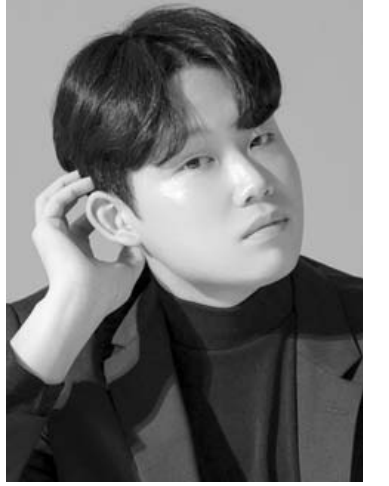
오는 20일 광주예당 소극장

피아니스트 김주상(사진)이 오는 20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리사이틀 무대를 갖는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도 활동하는 김주상은 지난 8월 그의 첫 저서 '음악해서 뭐 먹고 살래?' 출간에 이어 지난 3일 JCC아트센터 콘서트를에서 독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는 이번 광주 무대에서 음악적 상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하이든의 카프리치오소 판타지와 아와 피아노 소나타 1번 장조를 비롯해 리스트의 발라드 2번,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3번을 연주한다. 깊은 음악적 성찰과 테크닉을 요구하는 곡들로 피아니스트 김주상의 높은 음악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이번 리사이틀은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열린다. 공연이 열리는 광주예술의전당 인근 비엔날레관에서 본전시를 함께 즐길 수 있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공연은 2024 광주시·광주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명진 기자

## "저탄소 메시지 전할 어린이 목수 찾습니다!"

광주문화재단, 내일까지 참가 모집

어린이들이 목수가 돼 멸종위기 동물인 팬관, 거북이, 호랑이, 북극곰을 형상으로 창작물을 만들어 '저탄소 운동'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열린다.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별빛누리관 잔디밭 일대에서 펼쳐지는 광주문화재단 2024 어린이목수축제다.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목수축제'는 지역 예술가와 함께 어린이들이 스스로 짓고 만드는 활동을 통해 생각과 마음을 키우는 협동노작예술프로젝트다. 어린이들은 목재를 이용해 목공기술을 익히고,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공동 작업의 즐거움과 야간천문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올해 목수축제는 광주시 '대자보(대중교통과 자전거, 걷기) 도시 전환'이라는 정책을 멸종 위기 동물의 저탄소 이동수단으로 접목시켜 어린이 스스로 일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캠페인적인 주제를 담았다.

예술가와 함께 4가지 멸종위기 동물과 상징적 의미를 담아 이동 수단을 목



2023 어린이목수축제 현장

재로 구현해낸다.

▲지구온난화로 주요 먹이인 크릴새우가 줄어들어 힘든 '팬관(감기)노여운 작가 ▲생태환경 파괴로 수컷이 태어나지 않아 멸종위기에 처한 '거북이'(정류장) ▲백상목 작가 ▲자연 서식지가 사라지고 생태계가 위협받는 '호랑이'(버스) ▲손연우 작가 ▲해수면 상승으로 얼음이 녹아 갈 곳이 없어 위기에 처한 '북극곰(자동차) ▲박기태 작가 총 4개 모둠으로 나눠 제작된다.

어린이목수축제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광주문화재단 및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 총장프렌즈 1주년... "소덕이 집들이 오세요" 오는 15일까지 굿즈 할인·포토존 등 이벤트

"소덕이 집들이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총장프렌즈 캐릭터 탄생 1주년을 맞아 광주 동구 문화관광재단이 총장프렌즈 하우스에서 '소덕이 집들이' 행사 및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 총장프렌즈 캐릭터는 총 5종으로 무등산 아기호랑이 '소덕이', 소덕이를 잘 따르는 불꽃 '부리', 아이들을 꿈꾸는 아기토끼 '쭈', 장난꾸러기 하늘다람쥐 '로라', 예의바르고 정직한 '고고'가 있다. 이벤트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전체 굿즈 10% 할인 ▲인스타그램 좋아요, 댓글 참여시 4종 포토카드 증정 ▲체험프로그램 참여시 지비트 1+1 더블



들에게 더욱 친밀하고 가깝게 다가갈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총장프렌즈 하우스 굿즈샵은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컨셉으로 MZ세대 및 알파세대를 겨냥해 해리포터와 부다페스트풍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다. /최명진 기자

제작 ▲총장프렌즈 캐릭터 대표로고 및 총장축제 배리어이션 로고 최초 공개 등이 진행된다. 포토존도 운영된다.

문창현 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탄생 1주년 기념 이벤트를 통해 총장축제 캐릭터가 대중들에게 더욱 친밀하고 가깝게 다가갈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총장프렌즈 하우스 굿즈샵은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컨셉으로 MZ세대 및 알파세대를 겨냥해 해리포터와 부다페스트풍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다. /최명진 기자

#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묵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